

경기도, 철도 이용 활성화... 환승주차장 확대

이달 조례 입법예고... '스마트 주차시스템'도 도입

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수를 늘리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경기도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

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역사 건설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철도시설 건설 시 부설주차

장 확보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기준(150㎡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수준이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는 '데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설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승주차장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용 기자 mjh@sinililbo.co.kr

내년 1월2일부터 의정부경전철 운행시각 조정

(출·퇴근시간대 3분30초~4분)

시, 차량 중정비 후 원상복귀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026년 1월2일부터 의정부경전철 열차운행 시각을 일부 변경한다.

이번 조정은 중정비 기간 동안 안전한 열차 운영을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정비는 결전철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 과정으로, 차량 분해 및 주요 부품 교체 등 대규모 정비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비 기간 가운데 운행 가능한 차량 수가 제한돼

불가피하게 운행시각을 일부 조정된다.

운행 계획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30분·오후 5시30분~8시)는 기존 3분30초에서 30초 증가된 4분 시격으로 조정된다.

시는 운행 시각 변경 기간 동안 경전철 운행의 안정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중정비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체계에 복귀할 계획이다.

한정용 기자 mjh@sinililbo.co.kr

마포유수지 소유권 이관 받아

區, 문화체육센터 건립키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4일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에서 '구민의 품으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새출발 기념식'을 개최했다.

구는 마포유수지 공간을 구민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재정의하고, 마포지역의 문화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노후화된 마포유수지에는 새로운 집수정 시설을 갖춰 우수 처리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고, 녹우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한강변 발전과 도시 전반 균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인 '마포강변8.2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상주차장을 철거하고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센터 지하에는 주차장, 1층부터 3층까지는 체육시설, 4층과 5층에는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배치한다.

문민호 기자 mmh@sinililbo.co.kr



전철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행사 참석

시흥시청에서 열린 '전철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오 구청장(왼쪽)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전철차량기지내 대개별 비전을 살펴보는 모습.

오세훈 서울 노원구청장이 지난 3일 청동차량기지 내부에서 열린 '전철차량기지 종합

시흥시청에서 열린 '전철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오 구청장(왼쪽)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전철차량기지내 대개별 비전을 살펴보는 모습.

제설대책반 본격 가동... 도로 134개 노선 247.1km 24시간 모니터링

전남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운영

상습결빙구간 자동 염수분사... 올해 5곳 추가 설치

전남도는 오는 2026년 3월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

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km다.

도는 상향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3000여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정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시 즉시 대응을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연하검상 1998톤, 소금 4810톤, 친환경 제설제 5765톤, 제설장비

20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상습결빙구간에는 염수분사 자동차 시스템 40대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원을 투입해 5곳(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터널·광양 진월로·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남양·황송순 기자 whng04@sinililbo.co.kr

문화체육센터에 항균등 설치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대기 공간에 가시광선 항균등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항균등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외선 살균 방식과 달리,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선(405nm 청색광)을 이용해 살균을 진행한다. 이 제품은 점소등 빛수에 맞춰 일반 조명과 항균 조명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번 항균등 도입을 통해 다양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nililbo.co.kr

노원구, 전국 최초 구청사 내 탄소포집장치 시범 운영... 탄소중립 실천 앞장

보일러 배출 탄소 90% 포집 소나무 1370그루 1년 흡수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세훈)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청사 보일러에 '탄소 직접 포집시스템'을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탄소 직접 포집(Direct Air Capture, DAC)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포집해 농축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기술이다.

구는 지난 10월 (주)라이셀,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가 구청사에 설치장소와 운용

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하면 (주)라이셀은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연구원 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거쳐 실증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탄소포집설비(Solid-C)는 보일러의 배출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배관 연통에 직접 연결된다.

이 방법으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포집률 90%를 달성하는 경우 약 11.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137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nililbo.co.kr

'구조물 이상' 동탄숲 생태터널 통제

임시 셔틀버스 운행·우회도로 안내

화성시, 교통 불편 최소화

경기 화성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구조물 이상 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터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3일 기존에 운영하던 '안전대책반'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반'로 격상해 전방위 대응을 내렸으며, 정방면 사창과 관계 공무원들은 동탄숲 생태터널 현장을 방문해 교통 통제 및 긴급 보강공사 추진 상황을 살폈다.

다른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 점검했다.

시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터널, 네이비지도, 카카오톡 등 주요 앱을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터널 인근 목동 및 청계동을 순회하는 임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터널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우회 조치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황성·송윤근 기자 ygs@sinililbo.co.kr

이어 동탄출입에서 재난안전대책반부 회의를 열고 우회도로 안내, 임시 셔틀버스 운행, 교통 대책 마련 등 전방위 회의를

30년만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인천 부평구, 18 4만톤 공급

오는 17일 시민목화행사 개최

인천 부평구가 인천 최초로 추진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치고, 30년 만에 콘크리트 안에 잠자던 굴포천을 구민들에게 돌려준다.

구는 4일 부평1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범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목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차준택 구청장은 사업 경과를 보고받은 뒤 복원구간 시범부 아취차단시설

을 확인한 뒤 유지용수 계수변을 개방, 굴포천 복원구간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여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하천을 도심 속 숲·천·습·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까지 1.5km구간이다.

굴포천 복원구간의 하천수는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에 별도 재이용시설에서 소독처리를 통해 4만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을 오는 17일시민목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nililbo.co.kr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질을 탐비공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했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

인천광역시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